

흔들리는 문화수도

송위원장 해촉 반발 민간위원 전원 사퇴 움직임

추진본부장 2달째 공석... '종합계획'도 늦어져

송재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이하 조성위) 위원장에 대한 청와대측의 전격 해촉과 추진기획단 본부장의 공석으로 인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송 위원장에 대한 전격 해촉에 따라 문화도시 추진 사업의 최고 심의기구인 조성위 위원들의 동반 사퇴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강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발효에 따라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었던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인 '종합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송재구 조성위원장에 전격 해촉했다. 송 위원장 해촉에는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둘러싼 문광부와의 갈등과 송 위원장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차기 정권 이양'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위원장직 해촉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23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촉에 따른 입장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구나 현 제2기 조성위의 민간 위원 13명은 모두 송 위원장이 추천해 위촉된 인사들로, 이들의 집단 사퇴 가능성도 커 8개월이나 늦게 출범한 현 조성위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문화도시 추진 실무기구의 장인 추진기획단 본부장 자리가 지난 2월 이영진 본부장의 사업 이후 2개월 간 공석으로 있어 각종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랜드마크 기능 보강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큰 문제다. 문광부는 지난 달 광주시와 시민들이 요구한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완을 위해 2천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을 건설하겠다는 설계 변경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달 초 광주를 방문한 우

규승 설계자가 설계 변경시 사업이 1년 6개월 지연된다는 이유를 들어 설계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공연장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놓아 광주시와 의회, 동구 일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문광부와 광주시는 빠르면 이달, 늦어도 상반기 중에 완성하여 했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가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시책을 맡아한 것으로, 문광부와 광주시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면 조성위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되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종합계획이 조만간 확정되더라도 중앙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마치려면 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모두가 이해를 모으지 않으면 사업은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희증기자 chae@kwangju.co.kr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1~2가에서 열린 '제37회 지구의 날' 및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 시민들이 '자전거 대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금남로에선 'CO2 줄이기 체험' '천연 염색 체험' '넝쿨 식물 나누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워직랑 기자 jrwi@kwangju.co.kr

4·25 재·보선 D-2 막판 주말 유세

부동표 잡기 총력

민주·한나라 지도부 무안·신안 총출동

4·25 재·보궐선거 이전 마지막 주말과 휴일인 21일과 22일 각 후보와 정당들은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의 총력 지원 아래 부동층 흡수를 위한 막판총력전을 벌였다. 〈관련기사 3면〉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홍업 후보는 21일과 22일 무안 일로 5일장터와 삼향, 몽탄, 해제면 일대를 순회하며 거리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효석 원내대표, 이낙연 중앙선거지지원단장 등 21일 김후보 지원 유세전을 펼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도 22일 목포 여객선터미널과 북항에서 주민들을 만나 차남인 김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며, 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무안·신안에 머물 예정이다.

한나라당 강성만 후보는 20~21일 신안 섬지역 거리 유세에 이어 22일에

는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신안 팔금, 안좌면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대표는 "강 후보는 젊고 능력있는 일꾼으로서 신안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지역·이념·세대를 하나로 아우르는 '삼합정치'와 정권교체론을 역설했다.

무소속 이재현 후보는 21일 무안 일로와 망온에서 집중 유세를 열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22일에는 삼향면 등지에서 거리 유세를 펼쳤다. 박찬종 전 의원은 20일과 21일 연설원으로 나서 "전라도민이 김대중 선생의 최근 행보가 잘못됐음을 투표를 통해 집단상소해야 한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전남 7개 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도 막바지 표심잡기에 전력을 쏟았다.

/정후기자 who@kwangju.co.kr

제15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7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강택원 교수 '비뇨기계 종양의 최신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7일 '제15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뇨생식기 계통의 종양 등을 다루는 '비뇨기계 종양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비뇨기과 강사입니다.

■ 주 제 : 비뇨기계 종양의 최신 치료

■ 강 사 : 강택원 전남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 일 시 : 4월 2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광州日報社·전남대병원

www.nyl.co.kr

남북, 내달 17일 열차 시험운행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이 다음달 17일 실시되며 이를 위한 군사보장 조치가 취해지도록 남북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북 쌀 차관 40만t도 5월 말부터

제공하는데 합의했지만 남측은 '북한이 2·13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 쌀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남북은 22일 오전 8시30분께 평양고려호텔에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종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작년 5월 25일로 예정됐던 북한 군부의 반대로 행사 하루 전 무산됐던 열차 시험운행은 1년 만인 5월 17일로 다시 일정이 잡혔다.

남북은 열차시험운행에 필수적인 군사보장 조치에 대해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선에서 질점점을 찾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iss the future, 뉴욕생명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준비할 사람들입니다

나와 가족의 편안하고 행복한 미래, 가장 먼저 뉴욕생명의 FC와 상의 하십시오.
다양한 경험과 훌륭한 교육으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고객의 상황과 목표를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여 안심하며 미래를 기다릴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Aaa 상향 | 미국 New York Life, 보험 재정 안정성 부문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 (2005년 12월)

Fortune 선정, 100대 기업 | 미국 New York Life,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생명보험회사 2위

52년 연속 MDRT 회원 1위 | 미국 New York Life, 2,300여 명이 회원 자격 보유

미국 New York Life에서 25% 이상의 Agent들이 MDRT 회원이 될 수 있었던,
온라인 전통과 역사로 축적된 선진 교육시스템

미국 New York Life에서 25% 이상의 Agent들이 MDRT 회원이 될 수 있었던,
온라인 전통과 역사로 축적된 선진 교육시스템

